

프로젝트 회의록

회의일시	2024년 00월 00일 월요일	팀명	정면돌파
참석자	김에지, 김정하, 박예림, 박태환, 이승연, 지성준		
회의주제	기존 국내 OTT사이트인 티빙(TVING)의 as-is, to-be(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 분석)		

회의 내용

<As-Is>

1. 콘텐츠 업데이트 지연

티빙은 일부 인기 콘텐츠가 다른 OTT 플랫폼보다 늦게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해외 인기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다른 OTT 서비스보다 티빙에서 제공되는 시점이 늦을때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초래

2. 가격 대비 콘텐츠 부족

티빙은 다른 OTT 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이용자들이 많음.
경쟁 OTT들(예: 넷플릭스, 웨이브 등)이 다양한 콘텐츠와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티빙은 가격에 비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다수

3.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문제

티빙의 UI/UX 디자인은 다소 직관적이지 않거나 불편하다는 평가.
화면 이동이나 메뉴 탐색이 다른 OTT 서비스에 비해 불편하다는 점, 특히 모바일 앱에서 일부 기능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됨

4. 콘텐츠 라이선스 문제

일부 콘텐츠가 지역적으로 제한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제공되는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는 특정 콘텐츠를 볼 수 없거나, 볼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5. 화질 및 버퍼링 문제

일부 사용자들은 티빙에서 제공하는 화질이 다른 OTT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끼는 경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버퍼링이 발생하거나 스트리밍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고화질 콘텐츠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불호의 요소가 될 수 있음.

6. 특정 방송사 콘텐츠의 한정적 제공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예: JTBC, tvN 등)을 많이 제공하지만, 일부 방송사의 콘텐츠는 티빙에서만 제공되지 않고, 다른 OTT나 방송사의 공식 앱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사용자가 티빙에 가입한 이유가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음.

여기서 클론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인 UI/UX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보기로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분석하였다.

<To-Be>

UI/UX 개선 및 사용자 맞춤형 경험 제공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특히 모바일, 스마트TV, PC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UI/UX 디자인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사용자 맞춤형 UI

이용자의 선호도나 시청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추천화면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및 탐색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빠른 반응 속도

화면 전환이나 콘텐츠 로딩 속도를 개선하여 버퍼링이나 지연 없이 원활한 사용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